Beyond the RISK
Geopolitical Research

2026. 4. 28.

글로벌 투자전략팀

유승민 이사, Chief Strategist
(지정학, 자산배분전략)
strategist.you@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美 국내법 전쟁 60일 시한 무용

협상 지속 예상, 시간이 문제

- 美 의회가 전쟁권한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는 5.1일 이후 전쟁지속 가능
- 해당 법조문의 맹점, 의회 구도 등에서 입법, 사법적 전쟁중단 강제력 사실상 없음
- 다만, 당사는 여전히 '선 휴전-후 협상'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 이 시나리오의 맹점은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비판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5.1일 이후에도 이란전쟁 수행 가능. 의회의 대통령 견제 도구인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 Resolution, Public Law 93-148)'의 제약을 우회할 카드가 다양하기 때문.

첫째, 법 조문의 맹점을 이용. 이법에서 60일 제한을 두는 기준은 "적대행위(hostilities) 또는 적대행위에 임박한 상황"에 미군이 투입될 때 가동. 따라서 행정부가 '적대행위'를 선언하지 않으면 의회 승인 없는 작전 지속이 현실적으로 가능. (3.2일 'Operation Epic Fury' 관련 의회보고는 이란 정권의 위협만 언급)

둘째, 美의 현 정치구도의 한계. 상하원에서 군사행동 중단을 합동결의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 이 경우 실행의 강제성을 위해서는 양원의원 2/3 이상의 재동의가 필요. 현재 공화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인 가운데, 그간 의회의 견제 무산(상원에 제출된 전쟁 권한 결의안은 3.4, 18, 24일, 4.15,22일 등 5차례에 걸쳐서 부결)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권한결의안에 대한 위헌 주장 등을 내세우며, 입법적, 사법적 강제에 의해 전쟁 중단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시사. 당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5.1일 미 국내법적 시한임박에 따른 이란전쟁 영향은 없다고 판단.

다만, 여전히 게임이론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선 휴전 – 후 협상(45%)'이며 현재의 협상 난항은 예상했던 바로 평가. 즉 협상 초기는 양측의 Bargaining Zone 겹치지 않으나, 반복적인 공식/비공식 접촉으로 미-이란간 단계별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임.

이 시나리오에서 한가지 맹점은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 국가별로 비축량의 차이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가 정상화되더라도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중에는 종전이 필요.

(참고) 美 전쟁권한결의안(War Power Resolution)은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국을 무력 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연방법. 베트남 전쟁 기간 중 행정부 권한이 비대해진 데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이 의회의 공식 선전포고 없이 장기화되면서 헌법상 권한 분배가 모호해진 문제를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법 제정. 다만 헌법 구조상 제1조 8항은 의회에 선전포고권과 군대 조직권을 부여하고, 제2조 2항은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와 백악관 사이 긴장이 본질적으로 존재.
'60일 +30일 규칙(Sec. 5)'은 이 결의안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 의회가 (1) 선전포고를 하거나 특정 수권법을 제정하거나, (2) 60일 기간을 법률로 연장하거나, (3) 무력 공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소집 불가능하지 않는 한 60일 이후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대통령이 미군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의회에 서면 인증할 경우 추가 30일까지 연장 가능.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